

다문화교육을 통한 시민사회 운동의 실천 방안 연구

김태이

(부산외국어대학교)

《목 차》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 1.2 연구범위와 방법
2. 이론적 배경
 - 2.1 시민교육으로 다문화교육의 개념
 - 2.2 다문화교육의 역할과 책임
 - 2.3 시민사회운동
3.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
 - 3.1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
 - 3.2 다문화 교육과 시민사회운동
4. 시민사회운동의 실천 방안
 - 4.1 정체성 확립 방안
 - 4.2 다양성의 수용 방안
 - 4.3 통합성 추구 방안
5. 결론

<Abstract>

Kim Tae Yi. 2018. 5. 31. **A Study on How to Practice Civil Society Movement through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2, 53-75. This study argues that necessities and goals of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practiced by civil society movement. In the dramatically rapid multicultural age, in order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Korea,

it is necessary for native citizens in Korea to improve thei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dex of ordinary people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eople who had multicultural education showed very higher multicultural acceptability. But for factors of 'expectation for one-directional assimilation' and 'dual assessment' showed low index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Therefore, it reveals that advanced curriculums and contents are required, that chances for ordinary people to have multicultural education should be extended, and that frequency of education and training should be increased. The civil society movements in Korea are in the important point for civil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starting as small communities(small groups) and grass democracy, one of conversions of new civil society movements. Therefore, it makes a suggestions about factors for multicultural education to be practiced in individuals' daily lives as civil society movement.(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ey words]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ulticultural Education, Civil Society Movement, Establish Identity, Diversity of receptor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국내 외국인의 체류현황을 보면, 행정자치부 발표로는 2017년 12월 현재 한국의 외국인 주민의 수는 176만 명이고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6만 명 대비 3.4%에 달하는 것으로, 2014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외국인 주민을 조사한 2006년 54만 명 이후 10년 동안 3

배 이상의 증가율이 보이는 것으로, 년 평균 14.4% 증가율은 주민 등록률 0.6%에 비하면 무려 25배에 달한다(행정자치부, 2017). 이러한 통계는 한국의 저 출산율과 한류 문화 확산에 관련하여 예상해보면 다문화사회로의 진입은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지구화의 진전에 따라 다문화사회로 전개되어 나갈 양상은 매우 높다. 더욱이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실천적인 논쟁이 없이 무비판적인 담론에 따라 다문화시대를 준비하는 것은 다문화사회로 살아가는 시민의 자세가 아니다(이용승, 2012). 한국사회는 아직 다문화사회로 진입했다고 볼 수 없지만, 다문화사회에 대한 담론은 많은 여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담론의 여력이 합리적이고 실천적인 논쟁을 거쳐 도달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정책의 일방적 제도와 정책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회적 기준이 매우 위험한 것이다.

‘어떠한 의식을 소유한 다문화시민이 이어야 하는가?’ 시민이란 집단적인 개념으로 공동체에 대한 책임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공동체적 시민성이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 시민의 위치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정체성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존중함에 대한 가치로 알아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작금에 한국사회는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문화 시민사회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 시민사회를 위한 연구와 논의가 부족한 현상이 한계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다문화 시민사회를 위해서 다문화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에 따른 실천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시민사회 운동의 실천적 방안 요소로 정체성 확립, 다양성의 수용, 통합성 추구를 설정하였다. 다문화 시민사회 운동의 목표가 다문화적 시민사회성의 함양에 있다면 궁극적인 목적은 조화로운 공존과 사회통합에 있다. 전 지구화의 시대적 흐름으로 다문화적 소양과 세계시민성을 갖춘 시민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론에 안주하지 않고 실천하는 시민으로 연결되도록 하고자 함에 있다.

1.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교육의 대상에 있어서 제도권 교육이나 다문화정책의 다문화 대상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즉 다문화사회에 있어서 다문화교육이 시민사회의 교육적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때문에 원주민인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시민사회 교육임을 밝힌다. 대부분 학교교육 도덕교과서에서는 다문화교육의 목표로 윤리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강조되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 교육 차원의 방향은 상호문화주의를 통한 이론적 제시와 세계시민성과 관련한 다문화 시민사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김민호, 2011; 김흥운, 2008; 변중헌, 2016)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자료를 중심으로 국내외 학위논문, 학술지 논문,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와 관련된 단행본과 정부의 연구자료,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시민교육으로 다문화교육의 개념

다문화교육은 동화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되었고(엄은경, 2012), 다문화교육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연구자의 목적에 따라 여러 시각에서 규정되고 있다. 킴리카(W. Kymlicka, 2010)는 다문화교육은 소수 이주민 집단을 배려하는 특별교육이 아닌, 그 집단사회 모든 구성원이 변화하여 다문화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능력을 신장시키는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 다문화적 시민성의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며 다문화사회의 다문화교육은 시민사회 교육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대표적 학자인 뱅크스(Banks, 2008)는 자신의 문화

에 대한 이해와 타 문화와의 상호작용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지구적(Global) 공동체에 필요한 시민으로서 기능을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다문화교육의 목적에서 정의하고 있다.

위와 같이 학자들의 주장을 바탕으로,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주의의 전제하에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고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자질이 갖추어지게 하는 시민사회 의식교육이다.

2.2 다문화교육의 역할과 책임

다문화에 대해서 시민인식은 점차적으로 보편적인 단계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에 비해서 다문화교육은 학교교육에 치우쳐 있다. 반면, 시민을 위한 다문화교육으로는 다문화지원센터를 통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의 교육이 전부일 정도이다.

뱅크스(Banks, 2008)는 다문화교육의 핵심을 “어떤 시민을 길러낼 것인가” 라고 제시하였다. 다문화시민은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전환적 시민(transformative citizen)이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 즉 다문화교육은 이주민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 다문화사회에 맞는 새로운 시민사회상을 요구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한 사회의 문화와 민족적 구성이 다양성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적 실천이 다문화교육이다. 그러한 변화를 인식하는 프레임(frame)에 따라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지향점이 달라지는 것이다(황정미, 2010). 또한 사회 전반에 대한 변화를 목표로 하는 실천적 교육임을 밝히고 있다(백은영, 2015). 다문화교육이 시민사회교육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책임의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 한국의 다문화교육은 다수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소수자 대상 교육이라는 제한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김용신, 2010). 다문화 시민사회교육의 지향점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위한 교

육과 이들을 수용하는 원주민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즉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인종과 언어 그리고 문화와 종교를 가진 소수집단들이 공동체 속에서 시민으로 함께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다문화적 시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길러 주는 교육이어야 한다(김홍운, 2008). 다문화교육에 있어서는 비주류집단에 대한 주류집단의 우월의식이 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편견, 불평등 또한 쉽게 재생산될 수 있다. 그러한 의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하여 보편적, 평등을 기반으로 내국인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이종우, 2013). 차별받는 그들을 위함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모든 집단을 포함하는 총체적 교육이어야 한다(Banks, 2008).

둘째, 다문화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한국사회가 궁극적으로 동화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한 연구도 없이 일방적으로 동화주의적 교육과 정책이라는 비판은 성급하다. 한국사회가 아직은 초기 다문화사회이고 문화에 대한 재사회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도기적 과정이다(김현정, 2010), 때문에 다문화교육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일천한 한국의 상황에서 정책의 급격한 전환을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황정미, 2010). 민족주의적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의 대부분이 동화주의라 하여 학계나 지역단체에서 비판되고 있다. 현재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결혼이주여성과 그 자녀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한국의 주류문화에 동화시키고자 하는 통합적인 성향이 높다. 그러나 한국적 특성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정책과 시민사회의 논의를 거쳐서 지금의 다문화정책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셋째, 소수자 대상으로 교육하는 목적이 교육의 장에서 소외, 배제되지 않고 교육적 지원을 하는 적극적인 다문화교육이라고 한다. 반면 다수자가 대상인 교육은 다문화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공존을 위한 가치와 태도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실천적인 시민사회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현실 속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존재해야 한다. 현재는 시민교육의 대안으로 시민사회교육의 개별적 개념으로 되어 있으므로 다문화교육의 목표와 함께 통합적인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

다문화사회의 시민의식은 다문화 시민사회교육에서 나오며 다문화교육은 시민사회교육으로서의 책임의식과 목표를 가져야 한다. 다문화교육은 시민사회교육으로서의 새로운 사회변화를 반영하는 교육이며, 제도권 교육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시민적 교육에서 제고되어야 한다(김창근, 2013). 한국의 다문화사회, 어떠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문제를 한국사회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풀어가야 한다. 또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과제이면서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시민사회의 책임이기도 하다.

2.3 시민사회운동

‘시민사회’는 오랜 세월에 걸쳐 다양한 의미로 쓰인 용어이며 고전시대부터 역사 속에서 몇 번의 부침을 겪었다. 따라서 같은 ‘시민사회’라는 단어라 해도 시대에 따라 다른 의미로 쓰였음을 알아야 한다. 고전시대의 사상가들은 시민사회 의미를 깨어 있는 시민이 그 사회 정책과 제도를 형성하게 하는 일종의 ‘정치사회’로 인식했다고 한다. 시민사회는 법이 지배하는 사회이며, 법이 뜻하는 것은 개인이 아닌 공적인 질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통치자가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하는 정치권력의 형태를 뜻하였고 개명된 정치문명의 이상을 가리켰다. 이렇게 보면 시민사회는 탄생 초부터 공적인 가치를 강하게 함축한 개념이다(조효제, 2006). 반면, 1987년 이후부터 한국의 시민사회 운동은 전통적인 시민사회운동에서 신 시민사회운동으로 변화를 해야 하는 시대적인 요구에 직면해온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부의 축적과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산업사회 가치에서 삶의 질과 관련된 탈 물질주의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변화를 일컫는다. 한국 시민사회 운동은 신 시민사회운동으로

의 전환이 시대적인 요청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신 시민사회 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 소공동체적(소모임) 민주주의, 자치적인 민주주의, 시민주권 민주주의의 강화를 의미한다. 또한 새로운 시민사회운동으로 이중트랙(two-track)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중트랙 전략은 시민사회운동의 집중화와 분권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이다(진시원외 1명; 286-287).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사회과학적인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 국가와 시민사회는 갈등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상호협력을 통해서 큰 시너지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국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시민사회의 역할로 다문화 교육을 생각해 본다. 물론 국가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다문화 교육을 국가는 중앙에서 관과 시민의 협치를 통한 결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하위조직의 역할은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원, 각종 교육센터 등에서 교육과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시민사회 운동이란 위에서 말하고 있는 생활 민주주의이며 탈 동원, 탈 운동의 전략인 것이다. 때문에 다문화 교육은 실천하는 시민사회 캠페인(campaign)이다.

3.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의 목적

3.1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

여성가족부(2015)에서는 다문화 수용성 지수 실태조사에서 구성요소로 다양성, 관계성, 보편성 세 가지 속에 8개의 작은 구성요소들로 다문화 수용지수를 산출하였다. 대상으로는 19세에서 74세 성인 4,000명과 청소년 3,640명이다. 다문화수용성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첫째, 대상별 접근 방안 모색 보다는 세분화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저 학력층, 고 연령층, 기능사·조립종사자 및 전업주부

등 다문화수용성지수가 낮게 나온 대상에 대한 다문화 이해교육 및 다문화감수성 교육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방적 동화 기대’ 그리고 ‘이중적 평가’ 같은 요소는 고정적인 관념의 변화에 저항이 매우 크다. 때문에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다문화수용성 지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심화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이 시급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이해교육 대상자를 확대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국민 대다수가 다문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치 못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인 대상의 다문화 교육을 확대하고 사회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제도적인 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주목할 점은 다문화 교육을 1회나 2회 받은 사람 보다 3회 이상 다문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다문화 수용성이 매우 높았다. 또한 ‘지각된 위협인식’ 과 ‘다문화 지향성’ 등에서 일관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의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이주민과 내국인 간의 교류 지원 프로그램 확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주민과 내국인 간의 접촉·교류가 다문화 수용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주민들이 다수 종사하는 업종과 이주민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상호간 공동 참여·교류를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를 높이기 위한 공교육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교 안에서의 경우 교과 과정, 특별활동 및 재량활동을 통한 다문화 교육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 밖에서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을 위한 여러 공간을 이용한 곳에서 다문화 교육과 다문화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더불어 다변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3.2 다문화 교육과 시민사회운동

다문화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실천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것이 목표인 점에서 ‘사고훈련’ 이고 ‘의식교육’ 이라 할 수 있다(Banks, 2008). 다시 말하면, 다문화 시민사회 교육은 교육(Erziehung)이기보다는 ‘도야(교양. Bildung)’ 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인간성’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Jeon, 2012). 이런 관점은 시민권과 관련 있는 권리와 의무가 중심으로 하는 시민사회교육의 논의에서 모든 것을 범으로는 환원해야 되기에 해명할 수는 없다. 때문에 한계에 있어 ‘판단력’ 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임이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판단력이란 여기에서 단순히 논리적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프로네시스(phronesis) 같은 ‘실천적 지혜’ 를 의미한다. 실천적 지혜는 상황에 대한 판단 능력뿐만 아니라 ‘인간의 도리’ 와 같은 상식적이며, 기본적 의무를 포함하고 있다(Canivez, 2002). 위에서 다문화 교육은 의식교육이며, 교양이고 판단력에 의한 실천적 지혜 즉 실천을 강조한다. 우리는 2장에서 시민사회의 용어 정리와 고전적 시민사회를 알아보았다. 또한 한국에서는 시민사회운동이 신 시민사회운동으로 전환점이 이념의 변화라고 했다면 다문화 교육의 실천은 시민사회운동이다. ‘다문화’ 하면 외국인 이주 노동자 혹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을 연상한다. 하지만 ‘다문화’ 란 어원은 ‘다양한 문화’ 이다. 우리 주위에 모든 사람들은 각자 다른 문화를 갖고 살아간다. 가장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너와 나의 다른 문화가 있는 현상을 볼 수 있다. 때문에 ‘다문화’ 를 이주민에 한정된 관점에서 보지 않고, 다양한 문화를 가진 개개인들로 본다면 다문화교육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교육이다. 교양으로서 누구나 교육받아야 하는 다문화교육을 시민사회 운동으로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는 교육과 실천이 되어야 할 것이다.

4. 시민사회 운동으로서 실천 방안

4.1 정체성 확립 방안

4.1.1 개인의 정체성

정체성은 타고 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만들어 낸 환경에 자신을 그 안에 포함 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은 두 가지 관점에 있다. 즉 사회로부터 판단되어지는 ‘나’ 를 발견하는 것이다. 또한 자신이 생각하는 ‘자아’ 를 찾아 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정체성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적 뿌리임에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다음은 이민자들의 자아 정체성에 대한 사례이다.

“나는 백인들이 주로 사는 도시에서 자랐다. 나의 부모 역시 아메리카화 되었고, 집에서도 주로 영어를 쓴다. 그래서 나는 중국어를 못한다.... 그래서 나는 가능한 나의 정체성을 백인들과 같게 하려고 노력했으나 편치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결코 그들과 같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지금도 내 안에 갈등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다. 나는 백인들과 있으면서 그들과 같다고 느끼지 못한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모여 있는 차이나타운 같은 곳에서 중국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과도 같다고 느끼지 못한다....(McCarthy et al., 2005 에서 재인용).”

오늘날 다문화사회에서 정체성을 이해할 때, 한 개 이상 또는 다중 정체성이 관점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사회 이주민들의 정체성을 이해할 때, 혼종성(hybridity)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용이하다. 이 때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상호 의존성이다’ (박홍순, 2007; 재인용).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주민 역시 이러한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다. 한국사회 구성원들과 같은 정체성을 요구할 수도 없지만, 이주민 고유의 정체성으로는 한국에서

살 수도 없다. 그렇다면 그들은 건강한 다중 정체성의 관점인 고유한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만나 제 3의 정체성을 갖게 되어야 할 것이다. 때문에 원주민인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한다. 원주민과 이주민의 정체성은 상호영향을 주고받으며 공존하기에, 건강한 개인의 정체성은 건강한 사회임이 자명하다.

4.1.2 국가관에 대한 정체성

국가에 대한 정체성을 논의 하고자 한다면 국가를 만드는 국민, 즉 민족의 개념을 생각해 봐야 한다.

“정신은 육체와 마찬가지로 욕구를 가지고 있다. 육체의 욕구는 사회의 기초가 되며, 정신의 욕구는 사회의 매력이 된다. 정부와 법이 집단으로서의 인간의 안전, 행복에 필요한 것을 주는 데 비해, 학문, 문학, 예술은 그만큼 전체적이지는 않지만 아마 훨씬 강력한 것이고, 인간이 묶여 있는 쇠사슬은 꽃 장식으로 가려서 인간이 그 때문에 태어났다고 생각되는 근원적인 자유의 감정을 억압하고, 인간으로 하여금 노예상태를 좋아하게 만들어 이른바 세련된 국민이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 욕구가 왕좌를 축조하고 학문과 예술이 그것을 강고하게 만들었던 것이다(니시카와 나가오2009, 재인용).”

루소의 이 글에 대한 니시카와 나가오는 ‘국민을 그만두는 방법’에서 문명/문화는 주권국가의 국가이성이라고 하는 냉엄한 에고이즘과 사람들의 ‘국민화’라는 강제를 은폐하는 꽃장식이다. 국민 또는 내셔널리즘이 첫 번째 의미의 국가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문명 그리고 문화는 그것을 지탱하는 두 번째 의미의 국가이데올로기다(니시카와 나가오, 2009). 결국 니시카와 나가오는 “민족과 문화=국가 이데올로기다.”라는 결론이다. 일단 '문명civilisation'에서 civil(시민의, 예의바른)은 13세기부터 사용되었고, civiliser(교화하다, 개화하다)은 16세기 후반부터 사용되었다. 즉 ‘시민’ 또는 ‘도시국가’라는 의미와 이미지로 문명이라는 새로운 관념이 시작되었다. 또한 '문화'의 경우에도 culture라는 용어는 13세기

말부터 사용 되었다. '경작된 토지'나 '가축의 보살핌'이란 의미에서는 '능력의 육성', '정신의 수양'이라고 하는 비유적 용법을 거쳐서 현재의 '문화'용법으로 정착된 것은 18세기 후반이었다. 그리고 그 시기에 이 개념은 프랑스나 독일 등 여러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되어서 지배적으로 사용되었다. 결국 문명이나 문화라는 언어의 탄생은 근대 국민국가와 함께 생겨 성장하게 된 이데올로기이며, 국민과 국민국가의 존재이유를 표명하게 되었다. 또한 문명은 선진국을, 문화는 후진국의 국가이데올로기로 변용하게 되었다(니시카와 나가오, 2009).

국민이 만드는 국가의 정체성에 민족과 문화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국가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고 국민국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과도한 민족주의 즉 단일민족이라는 문화는 시대적 상황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루소나 니시카와 나가오의 주장처럼 문화와 문명이 국가의 정체성을 만들었다면 적어도 처음부터 단일문화와 문명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일민족의 혈통이라는 아집적인 관념에서 벗어나서 다원주의적 시각으로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되 울타리를 크고 넓게 생각하는 유동적 정체성이 필요하다.

4.1.3 세계관에 대한 정체성

세계시민교육의 중요한 목표는 세계시민성에 대한 정체성 함양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복잡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계 공동체 시민으로서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음을 깊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문화적, 국가적, 지역적, 세계적 경험은 역동적이고 활발한 상호 관련을 맺으면서 영향을 주고받는다(Banks, 2004b). 그렇다면, 세계관은 어떠한 교육내용으로 형성되어야 다문화적 세계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추는가?

첫째 다원적 문화의식이 필요하다. 때문에 문화와 문화 간 정체성에 대한 인식으로 전 지구적인 관점을 가져야 한다. 또한 나 아

닌 다른 문화적 존재들이 가진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열린 민족의식이 필요하다. 세계 속의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세계화의 확산 속에서 모든 인간의 기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배타적 민족주의나 다양한 문화를 경계하는 국가주의적 주장으로는 다문화적 공존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셋째 세계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전 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고 했듯이, 지구적 연대로서 세계시민의 책임성을 자각하고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지역이라는 경계선의 국가에서 살고 있지만 세계 속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것이기에 열린 세계관에 대한 정체성을 요구한다.

4.2 다양성의 수용 방안

4.2.1 ‘다름’ 을 ‘이해’ 로 공존

가다머(H. Gadamer)에 의하면,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텍스트가 열려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때 열린 의식으로 텍스트와 해석자가 맺어지는 과정으로 ‘지평의 융합’ (fusion of horizons)이 일어날 수 있다(목영해, 2009). 지평융합 이라는 것은 대화하는 상대방들 간에 서로의 지평이 만나서 하나로 융합하는 것을 가다머가 표현한 것이다. 인간은 오랜 세월동안 뿌리박혀 내려온 고유하게 만들어진 전통과 문화에 의해 만들어진 민족성을 고집하게 되었다. 그렇게 형성된 관념은 선입견을 부여 받았다. 그런데 타자들의 또 다른 전통을 만나게 됨으로서 자신들의 선입견 대한 갈등과 마주 대하게 된다. 이때 대화와 타인에 대해서 알고자 함을 통해서 확장되어 가는 우리 자신의 지평이 발견된다. 여기에서 지평의 융합이 일어나는 것은 ‘이해’ 로 성립되는 것이다, 가다머 이론처럼 나와 나의 소통은 타자와의 연결된 지점을 찾으려는 노력이다. 때문에 이해의 지평을 확장하는 것이 더불어 공존하기 위한 다양성의 수용에 근본이 된다.

4.2.2 상대방 존중

존중이라는 측면의 단어인 톨레랑스의 어원은 ‘견디다’, ‘참다’를 뜻하는 라틴어에서 나왔다. 서구 사회에서는 인종, 문화, 종교의 차이로 격렬한 갈등으로 씨앗을 뿌렸다. 결국 많은 피의 댓가를 수확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톨레랑스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톨레랑스를 ‘관용’으로 번역되고 있다. 톨레랑스의 개념에는, 나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성적인 토론과 설득으로 다른 사람의 생각과 합의점을 찾아간다. 그러므로 극단을 부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시각이 담겨져 있다. 한편 톨레랑스는 미국이라는 다른 토양에서는 다른 꽃을 피웠다. 그래서 미국의 ‘탈러런스tolerance’는 톨레랑스와 발음상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상으로도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것인데, 역시 ‘관용’으로 번역된다. 미국 사회에서의 탈러런스는 사회 윤리가 아니라 경제 논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 피어난 탈러런스가 절충과 타협이라는 경제 논리의 다른 이름이라면, 유럽에서 피어난 톨레랑스는 현실을 변화시키는 힘이고 정의와 연대라는 사회윤리의 다른 표현이다(하승우, 2003). 그렇다면 우리는 톨레랑스적 상대방을 존중하는가, 탈러런스적인 상대방 존중인가? 이해와 타협을 위한 가식적인 존중과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며 타인을 존중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인가? 우리는 다문화교육을 통해서 톨레랑스적인 존중이 다양성의 수용에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2.3 반 편견 교육

다문화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인종’이고, 그로인해 생기는 것이 ‘편견’이다. 이종일(2014)의 “다문화사회와 타자이해”에서 인종주의 기원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종주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문제인식에 따라 인종주의의 기원을 다르게 보고 있다. 인종주의의 기원으로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른 지역을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있다. 자신들과 다른 인종을 차별화하기 위한 생물학적 근거로 들고 있다. 이 글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인종주의를 나누어 주장하고 있다. 첫째 스페인에서 인종주의는 스페인 재정복 시기에 개종 유대인들로부터 경제적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유대인 배제에 대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둘째 과학적 인종주의는 영국·프랑스 등의 서유럽 국가들이 피 식민지인들을 예속시키기 위해 과학(우생학·해부학·생물학)으로 동원하여 차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제도적 인종주의는 면화·사탕수수 등의 플랜테이션 농업에 필요한 싼 값으로 노동자 확보를 위한 법적 계약의 토대로 흑인을 차별한 것이라 할 수 있다(이종일, 2014).

반편견 교육은 국가와 인종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존중하며 편견이나 차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타자에 대한 배려나 다양성 인정이라는 교육 못지않게 인종편견에 대한 적극적 의미의 비판과 사회·경제면에서 실질적인 공정성을 실현하는 교육이 동시에 필요하다. 또한 그릇된 타자에 대한 인식은 자신의 환경에서 비롯되어지는 판단으로 기준이 된다. 그러므로 다름을 틀림으로 판단하는 왜곡된 인식을 조심해야 한다. 결국 인종이라는 단어는 제국주의적 자국의 이익으로 만들어진 단어이다. 휴머니즘적인 배려로 타자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존중해야 할 동등한 인격체임이 자명하다. 때문에 반 편견 교육은 다양성의 수용을 위해서 교육받고 교육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이다.

4.3 통합성 추구 방안

4.3.1 자유와 공정함

샌델에 의하면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공리의 극대화나 선택의 자유를 획득하는 것만으로 성취될 수는 없다. 정의로운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좋은 삶의 의미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야 한다. 또

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견의 불일치에 대하여 서로 관용을 베푸는 공공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그는 사회적 유대와 단결을 중시하여 시민들이 공공선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을 갖도록 자극하기 위한 공적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신중섭, 2011재인용). 공정에 대한 생각이 다른 상황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최소한의 합의를 찾아내는 것이다. 공정성의 원칙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원칙 자체가 아니고 원칙에 도달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공정한 과정과 절차를 걸쳐서 어떤 원칙에 도달했다면 그 원칙의 정당성은 획득된 것이다. 정당한 곧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어떤 법이나 제도가 결정되었다면, 그 법과 제도는 일단 정당성을 획득된 것이다. 그리고 그 법과 제도가 공정하게 운영되는가 또는 되지 않는가도 절차적인 공정성과 관련이 있다. 만약 운영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공정하게 운영된 후에 나온 결과를 보고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해서 안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발휘해야 할 미덕이 자신의 공정성 의미와 기준을 독단적으로 강력하게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우리사회가 덜 불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가려면 다른 사람의 입장을 존중하고 합의점 찾아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공정성과 관련하여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물음이 있다. “우리사회가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 보다는 “우리사회를 좀 더 공정한 사회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줄여야 할 불공정한 사례는 무엇인가?”, “우리사회가 과거와 비교하여 얼마나 불공정한 사례가 줄었는가?” 이다(신중섭, 2011).

자유와 공정은 다문화 사회에서 벌어지는 법과 질서를 놓고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샌델이나 신중섭이 말하는 것처럼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서는 개인의 이기적인 자유보다는 관용이 필요하다. 사회의 공정성을 외치는 이들은 나의 주관적인 관점에 공정만 옳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타인들의 또 다른 공정성을 존중해야 한다. 더불어 사회에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들

을 토론하고 줄여 나가는 협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자유와 공정함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공존하기 위해서 통합할 수 있는 이념을 찾아 추구하고자 노력 한다.

4.3.2 공동체 의식

여럿이 이루어진 하나는 다문화시대에서 추구해야 할 다문화 공존의 힘으로 보여준다. ‘여럿’이라는 표현은 단일성이나 전체성에 기반 하여 통합하는 힘을 추구하기보다는 다양성이나 개별성이 가진 힘을 추구하는 뜻이 강하다. 때문에 흔히 지적되는 “시너지(synergy)에서 세너지(senergy)로”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함께(syn)와 힘(energy)의 합성어로는 시너지가 결합하는 힘을 의미했다면 분리(separatae)와 힘(energy)을 뜻하는 합성어로 세너지는 분리하는 역동적인 힘을 강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세너지는 결합보다는 분리를 통해서 각각 개성과 강점의 힘으로 더 큰 힘을 발휘하는 정신을 추구한다(김창근, 2012). 여기서 ‘하나’는 획일화되거나 같아지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다문화시대의 ‘하나’는 연대하면서 서로 존중하여서 ‘둘’이 힘이 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간의 삶은 결코 인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더불어서 살아야 한다는 생철학적 관점으로 보자면 공동체 문제해결을 위한 연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동시에 문제의 근원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사회·정치철학적 논의에서 강조가 되고 있는 공동체주의나 자유주의에 놓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공동체 떠난 개인을 상상할 수가 없다. 진정한 통합을 위한 노력으로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이 다문화 교육으로 재인식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4.3.3 가치있는 이념

어떤 것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여기는 생각이나 견해.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와 준수해야 할 규범을 이념이라고 한다. 철학적 의미에서는 이성(理性)에 의하여 파악될 수 있는 최고의 관념을 뜻한

다. 그러나 철학적 의미로는 시대와 학자에 따라서 이념(理念)에 대한 개념이 달리 정의되고 있다. 즉 플라톤(Platon)은 존재자의 원형을 형성하는 것이 영원불변한 실재(實在)를 이데아(idea)로 보았다, 중세의 신학에서 이데아는 신의 지성(知性)속에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근세 초에 데카르트(R. Descartes) 등은 심리적인 의식을 가리키기 위해서 쓰였다. 즉 '이데아'라는 용어를 사용한 이후부터 관념(觀念)을 의미하게 되었다. 그런가하면 칸트(I. Kant)의 형이상학에서는 본래 대상인 영혼·세계·신의 3가지로 순수이성(純粹理性)의 개념으로 '이념'이라고 불렀으며, 원래의 개념으로 되돌려 놓았다.

또한 헤겔(G. W. Hegel)은 세계화의 과정 속에서 자신을 변증법적으로 전개하는 정신적인·절대적 실재(實在)를 이념으로 파악하였다(네이버 지식백과). 가치란 어떤 것일까? 비교의 대상이 필요하므로 상대적이다. 어떤 사물이나 개념에 값을 매긴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돈의 가치를 두는 사람은 모든 물건 또는 일에 가격적인 가치를 두게 되고 사랑에 가치를 두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사랑의 정도에 값을 줄 것이다. 위에서 시민사회운동으로서의 실천적 방안 요소로 크게 정체성, 다양성의 수용, 통합성 추구를 주장하였다. 정체성에는 개인의 정체성, 국가관에 대한 정체성, 세계관에 대한 정체성을, 다양성의 수용 속에는 '다름'을 '이해'로 공존, 상대방 존중, 반 편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을 했다. 마지막으로 통합성 추구 속에 자유와 공정함, 공동체 의식 그리고 가치 있는 이념을 제시한다. 가치 있는 이념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사회운동의 실천적 요소들이다. 다문화 교육의 목표에 도달하려면 이것을 개개인의 생활에서 가치로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선주민인 국민들의 이념에 대한 가치의 변화를 촉구한다.

5. 결론

지금까지 다문화 시대에 도래한 문제점과 다문화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다문화 교육과 시민사회 운동과의 관계에 입각한 합의점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시민사회운동으로 다문화교육을 미시적 관점에서 선주민인 국민이 생활에서 실천해야 할 덕목들을 살펴보았다. 다문화 교육은 공동체 내에서 문화의 다양성 인정하고 이해하며 존중하는 정신을 함양시킨다. 더 나아가서 지구화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인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 운동을 위한 다문화 교육이 되려면 개방적 삶의 태도를 지향하고 타인과 차이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한다. 이러한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이상적인 공동체적 삶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선택적인 행위의 기초가 되는 것은 공동체 생활과 인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인간에 대한 이해로 누스바움은 자기가 속한 집단의 순수성을 고집하거나 믿는 그릇된 생각은 “이방인을 향한 적개심을, 그리고 내국민을 향한 적개심에 대한 무감각만을 양산할 뿐” 이라고 단언한다(Nussbaum, 2011). 그리고 인간의 마음 속에 이러한 부정적 요소가 어떻게 자리하게 되는 지를 밝히기 위해 누스바움은 ‘임시적으로’ ‘어린아이에서’ 그리고 ‘익숙한 이야기’에서 출발하는데(Nussbaum, 2011). 이는 모든 교육의 근본은 어린아이의 교육에서 시작되며, 가정교육을 강조한 것이다. 때문에 다문화 교육이 평생교육으로 모든 국민의 의식 변화에 중점을 둔다면 열린 시민성을 위한 시민사회운동의 첫 걸음이 된다고 사료된다. 실천이 없는 이론은 이론일 뿐이다. 지구화 시대에 다원화된 공동체 안에서 다문화 교육으로 교양과 인간성을 성찰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다문화교육의 목적이 다양성 문화의 공존과 사회통합을 추구한다고 생각할 때, 다문화교육의 대상에 있어서 특정 대상을 두지 않고 모두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대상의 범위에서 보

면 다문화 시민사회 교육은 다문화 교육의 한 틀에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평생교육과 같이 다문화 교육은 다문화 시민사회교육의 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된다. 다문화교육은 차별받는 그들을 위함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총체적 교육이다(Banks, 2008). 따라서 다문화교육이라는 독립된 시민교육의 장(場)으로 연구되고 확장되어 나가야 다문화시대를 열어가는 데 실천적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방법으로 활발히 진행되어서 실천적 시민사회운동에 기여하기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김민호(2011). 지역사회기반 시민교육의 필요성과 개념적 조건, <평생교육연구> 17권 3호, 한국평생교육학회. 193쪽~221쪽.
- 김용신(2010). 글로벌시대 사회과 다문화교육의 방향, <사회과교육> 49권 1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47쪽~56쪽.
- 김창근(2012). 다문화교육, 우리 모두를 위한 교육이다, <울산교육> 63호, 18쪽~21쪽.
- 김창근(2013). 다문화주의와 만난 한반도 통일론. 파주: 양서원.
- 김현정(2010). 한국의 다문화현상과 시민교육.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홍운(2008). 다문화적 시민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 교육 방안, <다문화교육연구> 1권 1호, 한국다문화교육학회. 59쪽~80쪽.
- 니시카와 니가오(2009). 국민을 그만두는 방법. 고양: 역사비평사.
- 모경환외 공역(2010). 다문화교육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목영해(2009). 현대교육사상. 용인: 문음사.

- 박홍순(2007). 다문화와 새로운 정체성: 포스트콜로니얼 시각을 중심으로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서울: 한울 아카데미.
- 변종헌(2016). 다문화 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 <윤리교육> 40권, 한국윤리교육학회. 111쪽~131쪽.
- 백은영(2015). 정의윤리와 배려윤리의 통합적 접근에서의 다문화교육.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중섭(2011). 공정사회의 새로운 지평, <지식의 지평> 11호, 대우재단. 123쪽~125쪽.
- 엄은경(2012). 다문화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수법-문화반응교수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인진(2005). 민족문제 재성찰: 민족주의와 국민 정체성,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한국사회학회. 120쪽~144쪽.
- 이용승(2012). 한국의 다문화주의 정책패러다임 연구 및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다문화연구소 국내학술대회자료>, 65쪽~80쪽.
- 이종우(2013). 다문화교육의 윤리로써 인의 제안, <다문화교육연구소·동양윤리학회, 공동학술세미나자료>, 16쪽~28쪽.
- 이종일(2014). 다문화 사회와 타자이해. 파주: 교육과학사.
- 이찬욱·강진구·노지은(2014). 한국사회와 다문화. 서울: 경진출판.
- 조효제(2006). 편견을 넘어 평등으로. 파주: 창비.
- 진시원·홍익표(2016). 왜 시민주권인가?. 부산대학교출판부.
- 하승우(2003). 희망의 사회 윤리 톨레랑스. 서울: 책세상.
- 황정미(2010). 다문화시민 없는 다문화교육, <담론201> 13권 2호, 한국사회역사학회. 93쪽~123쪽.
- Banks, J.A, Ed(2004). Diversity and Citizenship Education: Global Perspectives. San Francisco: Jossey-Bass.
- Banks J.A.(2008).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모경환 외 옮김,(2008). 다문화교육 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Canivez, P,(2002). Eduquer le citoyen?(Park, J, W, Trans,) Seoul; Dongmunsun(Original work published 1995).

- James A. Banks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4/E.
- Jeon, J, Y,(2012). A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nature and objective for multicultural education in school.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 Kymlicka Will.(2010). *Multicultural citizenship: a liberal theory of minority rights*. 장동진 옮김(2010). 다문화주의시민권. 과주: 동명사.
- McCarthy, C. et al.(2005). Contesting Culture: Identity & Curriculum Dilemma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Postcolonialism, and Multiplicity. In McCarthy, C. et al. (eds.) Race, Indentity, & Representation in Education, London: Routledge.
- Nussbaum,C.M.(2011).Not for profit(Woo.S,Y.,Trans,) Seoul; Gungr(original work published 2010).
- 행정자치부, <http://www.mois.go.kr/frt/a01/frtMain.do>
-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
- 여성가족부, <http://www.magnet.go.kr/>
- 통계청, <http://kosis.kr>
- 법무부, <http://www.kostat.go.kr>

필자소개

성 명 : 김태이
 소 속 : 부산외국어대학교 일반대학원 다문화교육학과 박사과정
 소 속 : 6503kyy@naver.com

투고일: 2018. 5. 31 / 심사일: 2018. 7. 14 / 심사완료일: 2018. 7. 26